

01. 탁류

믿을 수 있는 어려움

해설 편 p. 06

읽이시간 7분 00초

정 주사는 xx은행 모퉁이까지 나와 미두장*계를 무심코 둘러다보다가 얼른 외면을 하면서,

“내가 네간놈의 데를 다시는 발걸음인들 허나 보아라!”

누가 굳이 오라고를 할세 말이지, 그러나 이렇게 혼자서라도 웅심을 먹어 두어야 조금은 속이 후련해진다.

그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저 가끔 **밑천 없이 하바***를 하다가 도화를 부르고는 젊은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편잔을 먹고, 그런 끝에 그 잘난 수염도 잡아 끄들리고 그 밖에도 별별 창피가 비밀비재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내가 이럴 일이 아니라 차라리 벗어붙이고 노동을 해먹는 게 옳겠다고, 크게 용단을 내어 선창으로 나와서 짐을 저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일껏 용기를 내어 가지고 덤벼든 **막별이 노동**도 반나절을 못 하고 작파해 버렸다. 힘이 당해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반나절 동안 배에서 선창으로 퍼올리는 짐을 지다가 거진 죽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길로 탈이 난 것이, 십여 일이나 갇힌 못 하고 앓았다. 집안에서들은, 여느 그저 몸살이거니 하고 걱정은 했어도, 그날 그러한 기막힌 내평이 있었다는 것은 종시 알지 못했다.

그런 뒤로부터 막별이 노동을 해먹을 생심은 다시는 내지도 못했다. 못 하고 그저 창피하나마나, 벌이야 있으나 없으나, 종시 미두장의 방통이*²으로 지냈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날은 **처자식**들을 데리고 앉아 굶고, 이렇게 사는 참이다.

입만 가졌지 손발이 없는 사람…… 이것이 정 주사다.

〔중략 부분 줄거리〕 한 참봉네 싸전가게에 하숙하는 은행원 고태수는 몰래 은행 돈을 빼돌려 미두를 일삼다가, 안주인인 김 씨에게 정 주사네 딸 초봉이와의 중매를 서 달라고 부탁한다.

김 씨는 이야기하던 음성을 일단 낮추어, 더욱 의논성 있게 소곤거리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앓더라도 차차 아시겠지만, 기왕이니 들어나 두세요. 그이가요…… 그 말두 혼수 비용을 자기가 맡끔 대서 하겠다는 그 말끝에 한 말인데…… 아 그 댁이 지내시기가 그렇게 어렵다니 참 안됐다구, 더구나 정 주사 어른이 별반 생화두 없으시다니 거 그래서 쓰겠나구 걱정을 해요. 하던 끝에, 그러면 자기가 인제 **혼인**이나 치르구 나서 형편을 보아서 **장사**나 하시라구 얼마간 **밑천**을 돌려 디려야 허겠다구 그리겠지요!……

글쎄 젊은이가 으썩은 그렇게 맘 쓰는 게 요밀조밀합니까! 온…….”

이 말까지 듣고 난 정 주사는 혼자 속으로 참고 천연덕스럽게 있기가 어려울 만큼 **호호호호** 한바탕 웃어 젖히든지, **춤**을 덩실덩실 추든지 하고 싶게 몸이 근지러워났다.

저편 짝에서 한동안 쌀을 파느라고 분주히 서돌던 **탐삭부리** 한 참봉이 가게가 너끔하니까 손바닥을 탁탁 털면서 이편으로 가까이 온다.

“정 주사, 그 혼인 꼬옥 허시우. 내가 보기에두 사람은 쓸만합디다…… 술잔 먹기는 허나 톱디다마는…….”

탐삭부리 한 참봉은 태수가 장가를 가는 것이, 마치 머리를 보게 되는 것같이 좋아서 하는 말은 말이나 사실대로 털어놓고 권을 하던 것이다.

“그이가 무슨 술을 먹는다구 그래요!”

김 씨는 기를 쓰고 나서서 남편을 지천을 한다.

“허어! 왜 저러꼬?”

“귀성없는 소릴 하니깐 그리지요!”

“먹는 건 먹는다구 해야 하는 법이야! 또오, 젊은 사람이 술을 좀 먹기루서니 그게 대순가? 정 주사 그런 건 가리잡는 분네야, 그렇잖수? 정 주사…….”

“허허, 뭐…….”

“아네요, 정 주사…… 그인 술 별루 먹잖어요. 난 먹는 걸 못 봤어요.”

“뭐, 그거야 먹으나 안 먹으나…….”

“그래두 안 먹는걸요!”

“난 보니깐 먹던데?”

“언제 먹어요?”

“요전날 밤에두 장재동 골목에서 취한 걸 본걸?”

정 주사는 실로(진실로 그렇다) 태수가 술은 백 동아리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탐삭부리** 한 참봉네 싸전가게를 나셨다.

그는 김 씨더러 집에 돌아가서 잘 상의도 하고, 또 아무려나 **당자인 초봉이** 제 의견도 물어 보고, 그런 뒤에 다 가합하다고 하면 곧 기별을 해주마고 대답은 해두었다.

그러나 그런 건 인사삼아 한 말이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 당장에서 정혼을 해도 좋았을 것이었다.

미상불 그는 선 자리에서, 여보 일 잘되었소, 자 그 혼인합시다. 사주단자에 택일(擇日)까지 아주 합시다. 책력 이리 가져오시오, 이렇게 꽤히 요정을 지어 버리고 싶기까지 했었다.

아무것도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었다. 김 씨의 말이, 자기 부인 유 씨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가합한 양으로 말을 하더라니까, 그러면 되었고, 당자 되는 초봉이가 혹시 어

1. 제목이 주는 단서

아쉽게도 제목에서는 별다른 힌트를 얻을 수 없다. 다만 작가가 채만식이다. 그러므로 아마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일 것이며, 주제는 세태 풍자일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어도 괜찮다.

2. <보기>의 적용 여부

네 번째 문항에 <보기>가 주어져 있다. 이를 통해 주제의 3요소와 시대적 배경이 1930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 환경 변화라는 작절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태도를 알 수 있다. 반드시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태도와 연결시켜 나갔어야 한다.

필수 CHECK LIST

- 인물 ① 외적 ② 내적 (심리, 태도, 욕망)
 - 시간·공간
 - 사건 (갈등의 요소)
- + 반복 / 변화 / 대비

정 주사는 ××은행 모퉁이까지 나와 미두장*계를 무심코 둘러다보다가 얼른 외면을 하면서,

“내가 네깅놈의 데를 다시는 발걸음인들 허나 보아라!”

누가 굳이 오라고 할세 말이지, 그러나 이렇게 혼자서라도 웅심을 먹어 두어야 조금은 속이 후련해진다.

그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저 가끔 **밀천 없이 하바***를 하다가 도화를 부르고는 젊은 사람들에겐 여지없이 편찬을 먹고, 그런 끝에 그 잘난 수염도 잡아 끄들리고 그 밖에도 별별 창피가 비일비재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내가 이럴 일이 아니라 차라리 벗어붙이고 노동을 해먹는 게 옳겠다고, 크게 용단을 내어 선창으로 나와서 짐을 저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일껏 용기를 내어 가지고 덤벼든 **막별이 노동**도 반나절을 못 하고 작파해 버렸다. 힘이 당해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반나절 동안 배에서 선창으로 퍼올리는 짐을 지다가 거진 죽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길로 탈이 난 것이, 십여 일이나 갇힌 못 하고 앓았다. 집안에서들은, 여느 그저 몸살이거니 하고 걱정은 했어도, 그날 그러한 기막힌 내평이 있었다는 것은 중시 알지 못했다.

그런 뒤로부터 막별이 노동을 해먹을 생식은 다시는 내지도 못했다. 못 하고 그저 창피 하나만, 벌이가 있으나 없으나, 중시 미두장의 방통이꾼*으로 지냈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날은 **처자식**들을 데리고 앉아 굶고, 이렇게 사는 참이다.

입만 가졌지 손발이 없는 사람…… 이것이 정 주사다.

▶S#01

[중략 부분 줄거리] 한 참봉네 싸전가게에 하숙하는 은행원 고태수는 몰래 은행 돈을 빼돌려 미두를 일삼다가, 안주인인 김 씨에게 정 주사네 딸 초봉이와의 중매를 서 달라고 부탁한다.

김 씨는 이야기하던 음성을 일단 낮추어, 더욱 의논성 있게 소곤거리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앗더래두 차차 아시겠지만, 기왕이니 들어나 두세요. 그이가요…… 그 말두 혼수 비용을 자기가 말끔 대서 하겠다는 그 말끝에 한 말인데…… 아 그 덕이 지내시기가 그렇게 어렵다니 참 안됐단구, 더구나 정 주사 어른이 **별반 생화**도 없으시다니 거 그래서 쓰겠나구 걱정을 해요. 하던 끝에, 그러면 자기가 인제 **혼인**이나 치르구 나서 형편을 보아서 **장사**나 하시라구 얼마간 **밀천**을 돌려 돌려야 하겠단구 그리겠지요!…… 글썽 젊은이가 으짚은 그렇게 맘 쓰는 게 요밀조밀합니까! 온…….”

이 말까지 듣고 난 정 주사는 혼자 속으로 참고 천연덕스럽게 있기가 어려울 만큼 **호호 호호 한바탕 웃어** 젖히든지, **춤**을 덩실덩실 추든지 하고 싶게 몸이 근지러워났다.

저편 쪽에서 한동안 짚을 파느라고 분주히 서둘던 탐사부리 한 참봉이 가게가 너끔하니까 손바닥을 탁탁 털면서 이편으로 가까이 온다.

“정 주사, 그 혼인 포옥 하시우. 내가 보기에도 사람은 쓸 만합디다…… 술잔 먹기는 허나 톱디다마는…….”

탐사부리 한 참봉은 태수가 장가를 가는 것이, 마치 며느리를 보게 되는 것같이 좋아서 하는 말은 말이나 사실대로 털어놓고 권을 하던 것이다.

“그이가 무슨 술을 먹는단구 그래요!”

→ 소설의 첫 장면은

- 상황을 요약 제시하거나
- 인물의 성격(CHARACTER)을 보여 주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정 주사의 캐릭터로 시작하고 있는 작품이다.

→ ‘입만 가졌지 손발이 없는 사람’ 정 주사

우선 정 주사는 <보기>에서 말한 대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가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작년 가을에는 막별이 노동이라도 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인생에 변화를 주려고 했으나, 반나절을 못 하고 그만두었다. 벌이가 있는 없는 노름판을 쏘다니고, 처자식들을 데리고 굶기며 지낸다.

이러한 정 주사의 상황을 과거 모습을 삽입하여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입만 가졌지 손발이 없는 사람’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 [중략 부분 줄거리]는 작가가 아닌 출제자가 써준다. 작가가 아닌 평가원이 써 주는 것이다. 쓸데없는 내용을 쓰지 않는다. 이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3번씩 읽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한 다음, 본문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다.

→ 딸의 혼사 문제를 통해 나타난 정 주사의 CHARACTER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는 정 주사네 딸 초봉이의 중매가 언급되었다. 딸을 어디에 시집 보내느냐 하는 것은 아버지로써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정 주사는 자신의 현재 처지를 걱정해 주고, 장사 밀천이라도 드리겠다는 고태수의 말에, 참기 어려울 정도로 흐트함을 느끼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은 정도가 된다.

[중략] 이전에 나타났던 정 주사의 캐릭터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딸에게 제대로 된 배필을 골라 주겠다는 정상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보다는 당장 자신의 이익에 급급한 모습이다.

문항 분석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을 논평하는 방식으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출제의 포인트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항에서는 문학 개념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대 소설에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항이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지문 전체를 지배하거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두드러지게 사용된 특징을 묻는다. 지문을 크게 바라보며 편하게 답을 고르면 된다.

정답 해설 ★★☆☆☆

답 ②

윗글에서 서술자는 정 주사를 가리켜 '입만 가졌지 손발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논평을 통해 서술자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 주사를 비판하며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중략 이전은 정 주사에 대한 인물 소개,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김 씨와 한 참봉, 정 주사의 대화, 혼인에 대한 정 주사 내면의 생각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윗글에서는 서술자가 '작년 가을' 정 주사가 '노동'을 했던 일을 회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교차, 그것도 선지가 원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교차시키지는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만약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했다면 입체감은 생겼을 것이다.
- ④ 윗글에는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윗글에는 '미두'와 같이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단어가 제시되기는 하지만,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참봉은 정 주사가 태수를 사위로 맞으려는 것을 만류하였다.
- ② 김 씨는 정 주사의 형편을 고려하여 자신이 혼수 비용을 보탬 것을 제안했다.
- ③ 정 주사는 태수가 술을 잘 마신다는 사실을 듣고도 크게는 신경 쓰지 않았다.
- ④ 정 주사는 가장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별이 노동을 그만두었다.
- ⑤ 정 주사의 가족들은 정 주사가 몸을 혹사해가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것을 염려했다.

출제의 포인트

지문과의 내용 일치를 묻고 있다. 장면별로 끊어 읽고, 선지도 끊어서 FACT를 기반으로 판단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답 해설 ★★☆☆☆

답 ③

윗글에서 한 참봉은 정 주사에게 혼인을 찬성하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태수가 술을 잘 먹는다는 사실을 은근히 알려 준다. 그러나 '정 주사는 실로(진실로 그렇다) 태수가 술은 백 동아리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에서 알 수 있듯이 정 주사는 그러한 한 참봉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한 참봉은 '태수가 장가를 가는 것이, 마치 머느리를 보게 되는 것같이 좋'다고 생각하며 "정 주사, 그 혼인 고옥 허시우. 내가 보기에도 두 사람은 쓸 만합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태수의 중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참봉이 "술잔 먹기는 허나 밥디다마는"이라며 태수의 결함을 말해주는 것은 '사실대로 털어놓고 권을 하던 것'뿐이지 이후에 "젊은 사람이 술을 좀 먹기루서니 그게 대순가?"라고 말하는 것에서 혼인을 만류하고자 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② "그 말두 혼수 비용을 자기가 맡끔 대서 하겠다는 그 말끝에 한 말인데"라는 김 씨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혼수 비용은 태수가 대겠다고 하였으며 김 씨가 대겠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④ 정 주사는 '힘이 당해 낼 수가 없'어 막별이 노동을 그만 두었으며, 가장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별이 노동을 그만 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집안에서들은, 여느 그저 몸살이거니 하고 걱정은 했어도, 그날 그러한 기막힌 내평이 있었다는 것은 종시 알지 못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 주사의 가족들은 정 주사가 앓아 누운 이유가 막별이 노동을 하였기 때문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